



Korean Culture &

ARTS JOURNAL

>>> 2006, January

예술 현장

- 046 예술의 현장' 2005 올해의 예술상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격려와 인정, 그 축제의 한미당/이석렬
- 054 작품 속 공간을 찾아서' 화가김선두 작품공간 정남진' 등근 비다가 기출을 부추기는 곳, 정남진/김영남
- 062 문화예술직종 100 비디오팀리스트'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람/김민선
- 070 젊은 예술 100 여창가곡 전수자 정마리' 다양한 장르와 소통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원경채
- 076 해외문예 '함부르크 <영상의 역사> 전' 영화 이전의 영상, 그 역사의 현장 /이성면
- 085 해외문예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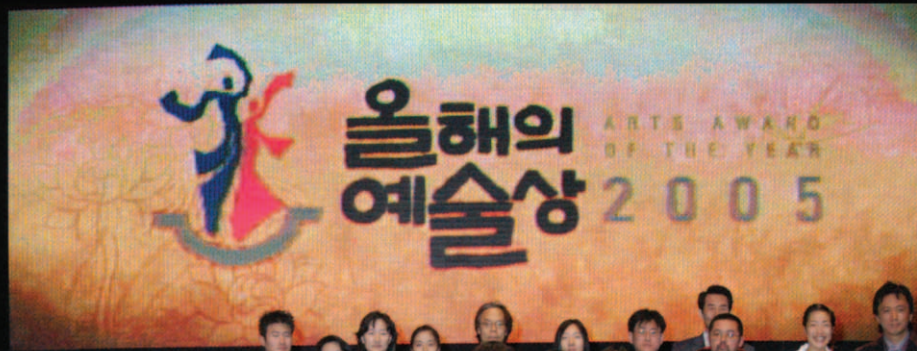
리뷰 2005년 점검과 2006년 전망

- 086 문학' 평양, 프랑크푸르트, 김애란/서영채
- 090 미술' 2005년 미술, 그 내달리는 퇴행과 격렬한 이완의 일상화/강수미
- 095 음악' 황금시대 를 향한 여정/아나리메
- 100 국악' 한국 전통음악학과 새로운/이진원
- 106 연극' 2005년 연극의 명암과 젊은 희망들/노이정
- 111 무용' 창작작품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한해를 기대하며/박성혜
- 114 영화' 상상력의 싸움, 2005년의 한국영화/김영진
- 119 출판' 출판산업의 희망이 지식강국의 비전으로 승화되기를/백원근
- 124 대중문화' 다양한 형태로 분열한 2005년 대중문화/조원희

격려와 인정, 그 축제의 한마당

이석렬 | 2005 올해의 예술상 음악분야 본심위원

제2회 '올해의 예술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9일 동송동 아르크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적지 않은 문화 예술인들이 예리한 감성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시상식은 정겨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상의 진정한 의미는 격려와 상호 인정이라고 생각되며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예술가들의 마음이 수상작들과 시상식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다.



2005년 '올해의 예술상' 시상식이 끝난후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촬영한 장면

오른쪽 페이지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장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예술인들의 마음 속에도 아쉬운 감정이 찾아든다. 예술이 세상을 좋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한 해 동안 이런저런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쳤던 회상들이 찾아드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내년 활동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품으면서, 이런 연말 분위기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수여되는 '올해의 예술상'은 그 뜻과 취지가 단연 특별하다고 하겠다.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계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예술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이해 차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심성을 훌륭한 작품으로 발현시킨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문화예술계의 인재들이 한 자리에 함께

2005년 두 돌을 맞은 '올해의 예술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9일 동송동 아르크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필자는 이날 시상식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분위기와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그 장소에는 예상보다 많은 축하객이 찾아와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대극장의 1층 객석은 거의 매워져 2층의 객석까지 개방한 상태였고 축하객은 계속해서 입장했다.

이날 시상식은 전통예술의 뜨거운 북소리와 화려한 춤사위로 시작됐다. 이날 축하무대 분위기를 먼저 띄운 혼 무용단과 민족음악회의 <삼도설장구> 공연은 역동적인 리듬과 춤사위로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대부분의 시상식은 사회자가 먼저 등장하여 시상식의 취지를 먼저 설명하지만 이번 시상식은 짙막한 전통예술 공연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서막부분을 한편의 공연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어 연극배우인 사회자 한명구가 무대에 등장했다. 사회자 자신이 예술인으로서 이 축하무대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터라



겸허하고도 정중한 분위기로 시상식을 이끌 수 있었다. 한명구의 멘트는 군더더기가 없어 보였고 그 자신이 예술인들의 노고를 잘 이해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곧바로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7개 전 예술분야에 대한 시상식이 펼쳐졌다. 시상은 분야별로 차례로 이어졌는데, 이때 인상적이었던 점은 수상자들의 기획의도나 수상소감을 담은 영상이 대극장의 스크린에 펼쳐진 것이다.

간략하게 수상자들의 마음을 담은 이 화면들은 그들의 예술관과 자아를 대변하는 듯 했다. 공연 제작의 취지를 말하는 이들 예술인의 모습은 꾸밈이 없고 소탈했다. 그들의 얼굴 표정에는 단호한 인상도 보였는데, 수상자들 대부분이 어려운 제작환경을 극복하고 이 상을 수상하는 것이어서 단호한 표정들은 특히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들 모두가 어려운 순간이 있었겠지만 오른손의 마비 증상을 극복했다는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인터뷰는 보는 이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낳았다. 올해의 예술상 시상식이 끝나고 최우수상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에 음악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음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가 있었다. 바이올린과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계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예술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이해 차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심성을 훌륭한 작품으로 발현시킨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첼로 2인이 연주한 헨델의 '파사칼리아'는 음악이 지닌 화려한 면모와 정중한 인상 때문에 시상식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듯 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도 있었다. 김병익 위원장의 축사는 소담하면서도 의미가 있었다. 예술에 대한 가치와 수상자들에게 대한 노고 치하, 이 상이 지닌 의미 등이 함축적으로 묻어나는 축사였다. 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인사로서의 자상한 축사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우수상 시상식이라고 하여 올해의 예술상과 그다지 차별화된 진행은 엿보이지 않았다. 다원예술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최우상이 배출됐는데, 최우수상을 차지한 영광의 얼굴들은 모두가 소탈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들이었다. 여느 영화제나 가요제 시상식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의상은 없었지만,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한국문화예술계의 인재들이 한 자리에 함께 선 것이다.

최우수상 시상식이 끝난 후 영광의 32개 작품 수상자들이 모두 무대 안으로 행진하는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수상자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행복한 표정을 보일 때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배가되는 듯 했다. 이 순간은 우리예술계를 위해 노력한 전체 예술인들의 노고와 열정이 함께한 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날 시상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체 7개 예술분야 수상작들로는 어떤 것들이 영광을 안았으며 또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하게 말해보고자 한다.

각 분야 수상작들과 심사 내용들

문학 분야 본심 심사 과정에서는 다른 문학상을 수상한 책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비슷한 수준이라면 다른 상을 받지 않은 작품을 좀 더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최우수상을 시나 소설에서 내기로 했다고 하니 시와 소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봐야겠다. 본심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대체로 일치했고 심사는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소설에서 공선옥의 <유랑가족>과 윤성희의 <거기, 당신?>, 시에서는 최하림의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 평론에서 서영채의 <문학의 윤리>, 아동문학에서는 남찬숙의 <받은 편지함>이 올해의 예술상으로 결정되었다. 그 가운데서 최하림의 시집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가 이견 없이 최우수상으로 결정되었다.

미술 분야 본심 1차 회의는 예심을 거쳐 선정된 15건의 전시 중 출품을 고사한 2건을 제외하고 그 외 13건의 전시에 대해 진행되었다. 심사 대상이 된 전시들은 기획전 6건과 개인전 7건으로서 평소 현황에 비해 기획전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장시간의 심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강수미 기획 <번역에 저항한다>, 김주현의 <확장형 조각>, 윤난지 기획 <시간을 넘어선 울림: 전통과 현대>, 이영철 기획 <당신은 나의 태양: 한국현대미술 1960~2004> <함양아: Transit Life>가 선정되었다. 미술 분야 심의는 재차 노미네이트 전을 거쳐 본심 최종 심사를 거쳤고 비디오아티스트 함양아의 <Transit Life> 전시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미술 분야 수상작 심의의 경우, 대규모 기획전에 비해 소규모 개인전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전과 개인전의 수상 비율을 결정하자는 의견, 개인전



위/아래 · 전통예술의 뜨거운 북소리와 화려한 춤사위로 시작된 축하 공연무대. 혼무용단과 민족음악회의 <삼도설장구> 공연은 역동적인 리듬과 춤사위로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 등이 거론되었다. 수상작 선정의 심의기준으로는 전문성, 체계성, 지속성 등이 고려되었으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으로는 전시의 창의성, 예술성, 기량, 수용자 만족도 등이 고려되었다.

연극분야 심의에서는 예술적 우수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아동극이나 마임 등의 장르적인 배려나 관객의 인기도 등도 거론됐으나 예술적 우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극단 백수광부의 <그린벤치>, 극단 물리의 <죽도록 달린다>, 극단 미추와 PMC 프로덕션의 <벽 속의 요정>, Labo C.J.K의 <바다와 양산>, 극단 골목길의 <선착장에서>가 최종 본심을 통과한 5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최우수작품을 다시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그린벤치>가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벽속의 요정>은 모노드라마였던 점과 작년에 본 상을 수상했던 극단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으나 예술적 우수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본심을 통과하게 되었다.

무용분야 심사에서는 강미선 가인무용단의 <페드라> 등 15개 작품을 놓고 3차에 걸친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 안성수 픽업그룹의 <선택>을 2005년 올해의 예술상 무용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김영희무트댄스의 <마음을 멈추고>, 손인영NOW무용단의 <안팎>, 이경옥 무용단의 <2005 춘향 사랑놀이>, 서울발레시어터의 <봄, 시냇물> 등이 올해의 영광을 안았다. 작품 <선택>은 음악을 잘 해석한 단아한 동작으로 춤의 본래 맛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됐다. 또 무대조명을 잘 이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몇 년에 걸쳐 집중력 있게 춤을 구성했으며 드물게 대중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단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악분야 심사에서는 심층적인 토의 끝에 공연 주체가 수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오

페라 심의에 관해서는 공연물 자체에 대해 심의를 하되 오페라의 특성상 차후에는 작곡자 차원과 오페라 공연 차원을 따로 분리하여 심의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으며, 합리적인 평가와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지방의 공연들에 대해 차별적인 평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의와 토론 끝에 화음체임버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최우수상 후보로 선정하였고, 최희연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사이클 9번>, 서울바로크합주단 <창단40주년 특별정기연주회>, 김대진의 <모차르트 협주곡Ⅷ>, 서경선 작곡 교향시 <시월>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에서는 작품선정 기준이 '작품의 예술(문화)적 우수성 및 완성도'라고 정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고려한 것은 창의성과 수월성(秀越性), 기획·구성·연출 등의 참신성과 독창성, 제작진과 참여 예술인의 기량과 수준, 해당 작품에 대한 관객(혹은 관람객), 평론계, 언론계 등의 만족도와 관심도, 마지막으로 해당분야 발전에의 공헌도 및 과급성 등이었다. 아울러 올해의 예술상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을 선정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미 스타급 예술가가 된 예술인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수상결과 남북전통공예교류전 운영위원회의 <남북전통공예 교류전>이 최우수상을, 강은일의 <해금플러스Ⅴ-일상과 회상>, 민속악회 메나리의 <그 빛깔 그대로>, 타루의 <밥만큼만 사랑해>, 박은영 무용단의 <박은영 궁중무용발표회>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다원예술분야에서는 모두 2편의 수상작을 배출하였다. 다원예술분야 심사에서는 다원예술이란 장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며 논의 결과로 새롭고 실험적인 장르, 더 나아가 다른 장르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발생한 퓨전 혹은 크로스오버, 타장르

수상의 진짜 의미는 역시 격려와 상호인정이라고 봐야겠다. 이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한 올해의 예술상은 비단 수상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위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의 예술상' 시상식에서 이어지는 축하공연 무대

왼쪽 페이지
사회를 맡은 연극배우 한명구



위 · '올해의 예술상' 전통예술 분야 수상자들
아래 · 시상식이 열린 동승동 아르코예술극장 입구

오른쪽 페이지
시상식이 끝나고 대극장 로비에서 열린 피로연

의 예술적 완성도가 포함된 기획 및 실행의 참신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압축되었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의 표결 결과 1차 선정 작품으로 <Queen's Night> <2005 프린지 페스티벌> <제주 머리에 꽃을> <토탈씨어터 앨리스> 등 4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5 프린지 페스티벌>의 경우, 다원 예술적 활동 그 자체로는 존중할만하지만 초창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때 발전된 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Queen's Night>의 경우는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음악공연에 가까운 공연이라는 점과 다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심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듬해에도 두 작품은 수상작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다원예술분야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으로는 거리 예술제 준비위원회의 <2005 '제주 머리에 꽃을' 거리예술제>와 홍성민 / 김은영의 <토탈씨어터 앨리스> 두 작품이 선정되었다. 2005년에는 다원분야에서만 유일하게 최우수상이 선정되지 않았다.

무난하고도 정겨운 시상식의 분위기

시상식이 끝나고 대극장 로비에서 수상자들과 축하객, 예술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피로연이 있었다. 객석에서 나와 피로연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마치 사람들에게 의해 떠밀려 가는 듯 했다. 그 정도로 축하객이 많았던 것이다. 피로연장에서는 서로 간에 축하 인사와 수상자들의 개인 소감이 오고 갔다. 아울러 이날의 행사가 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예술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소담한 대화도 있었다. 올해의 예술상에 관계된 많은 이들이 모여 그동안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2005년 '올해의 예술상' 선정과 시상식은 무난하고도 정겨운 분위기로 끝났다. 적지 않은 문화 예술인들이 예리한 감성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작들과 관련된 '올해의 예술 축제'는 2006년 2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하여 2006년 4월까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고 별다른 문제점 제기는 없는 듯하다. 수상의 진짜 의미는 역시 격려와 상호인정이라고 봐야겠다. 이번에 제2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한 올해의 예술상은 비단 수상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위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전체를 중요시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시상식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예술가들의 마음이 이번 수상작들과 시상식을 더 값지게 할 것이다.

이번 수상작들과 관련된 '올해의 예술 축제'는 2006년 2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하여 2006년 4월까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시상식에서처럼 많은 청중들이 찾아가 축하해주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

사진 | 안덕화